2013학년도 2학기
불교상담대학·대학원
사이버대학 신입생모집
불교상담개발원 ☎ 02)737-7378

佛教新聞

대우투어 daeseungtour
신입생은 불자들의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우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간제 발행

불기 2557년 8월 28일(2013년 / 단기 4346년 팔월 7월22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940호

불교-정치권 가교 국회 정각회 30년

9월 4일 기념법회 봉행

국회 정각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불교와 국민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국회 원각회와 정각회는 오는 9월 4일 오전11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1983년 11대 국회 때 출범한 국회 정각회는 국회의원 불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심을 증장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불교계간의 소통창구로서 불교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단체다. ▶관련기사 17면

이번 30주년 기념법회는 정각회 창립 30주년을 자축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불교와 국민을 위해 다짐 더 정진할 것을 서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불교지도자와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신행 및 포교단체 대표, 정각회와 국회의원불교신도회 한·일·태 정회 등 각계각층의 불자 400여 명이 참여해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법어를 통해 불법을 따르고 실천하려고 시방한 불자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거운 다할 것을 당부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1700년 대표할 세계적 도량으로…

■ "건지동 역사문화관광지원 조성 사업"은

조계종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이른 "건지동 역사문화관광지원 조성" 사업은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교산으로서의 위상과 내실을 다지는 역사적 불사다. 1301년 개창시대는 이른으로 근대 한국불교 희토의 도심포교당으로 출발한 이후 서울의 중심부에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

조계사의 역사는 1908년 고종이 스님들이 도성 출입금지를 해제한 뒤 약해졌던 도성출입이 허용되면서 지금의 수송공원 자리에 세운 각황사를 모태로 하고 있다. 당시 불교계 숙원 사업이었던 4대문 안에 원등 세워 창제된 불교를 알리게 세우려고 노력했다.

일제에 시달렸던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암울했던 시절 한국불교를 지켜내려는 불교계의 노력과 노력은 태고사 창건으로 이어졌다. 민족말살정책은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불교 1천년 라는 위상에 걸맞게 일제가 일본 사방으로 통합하려는데 맞서 1908년 각황사를 열고 지금의 조계사 자리에 사찰을 세웠다. 태고사란 명칭은 한국 불교의 법통을 태고 보우스님에게서 찾는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해방이후 조계사는 왜색화 뒤 불교를 적결하는 정화의 산실로 거듭난다. 1954년 비구승들의 전통불교로 돌아와서는 정화운동이 벌어지면서 태고사는 조계사로 개칭된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종단 개혁불사의 중심에 있었으며, 2005년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완공해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전 총무원장 정대스님 제자시절에는 서울시와의 합의로 우정총국을 복원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조계사는 일제로 인즉 말살정책에 맞서고 불교정화운동의 중심지였는 점에서 한국 불교의 명백을 그대로 이어왔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종요한 시기에 대처불교 노력은 태고사 창건으로 이어졌다. 민족말살정책은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불교 1천년 라는 위상에 걸맞게 일제가 일본 사방으로 통합하려는데 맞서 1908년 각황사를 열고 지금의 조계사 자리에 사찰을 세웠다. 태고사란 명칭은 한국 불교의 법통을 태고 보우스님에게 찾는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한국불교 최대 규모 역사의 문화 아우르는 '불사의 원결판'

"사부대중 역량 총결집시켜야"

조계사 주지를 역임한 불광사 회주 지효스님은 "600년 서울을 대표하고 서울의 불교 주역 발족한 도량으로 가꿔왔으면 한다"며 "미전까지 현대식 건물을 세우는데 주력했다면 이번 역작을 계기로 문화를 회수하여 두는 정책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홍 중앙신도회장은 "노가 보다다도 이곳이 '불교성지'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난제에 봉착하게 될 텐데 2000년 불자들이 입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 되기까지는 부지매입이라는 비용이면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2일 조계사 신도회 회장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뒤따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교산지인만 사실 현대시 건물 1세와 조계사 법당 외에는 1700년 역사를 대표할 만한 게 없다"며 "불교를 수호하는 호법신장이 되어 여러분이 앞장서도 불사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홍다영 기자 hong10@bulgyo.com

공명선거위원단 발족한다

중앙선관위, 교구별 1인 추천받아 위촉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어스님)가 공명선거위원단을 구성하고 9월 둘째 주에 발족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2일 27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명선거위원단 구성은 선거법 제8조에 따른 것이다. 선거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실현하고 선거자유를 감시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위원단을 둔다"고 명시 있으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가운데 선거구별 7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각 교구선관위에서 1명씩 추천받아 2배명 공명선거위원을 구성하고, 후보등록 이 시작되는 9월 4일 이전에 위촉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명선거위원단은 중앙선관위 산하기관 자격를 받아 공명선거 실현에 앞장서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벌인다.

이현경 기자 ennato@bulgyo.com

민추본-조불련 남북관계 개선 '앞장'

을해 첫 실무회담 '희망'

금강산 신계사 합동법회 보현사 서산대사 다례제 수해피해 지원 등 논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효스님)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수인)가 을해 첫 실무회담을 갖고 합동법회 등 남북 불교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추본과 조불련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열린 을 갖고 남북관계의 불교를 틔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양측은 금강산 신계사 복원6주년을 맞아 오는 10월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하고, 서산대사가 입적한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오는 11월10일부터 22일까지 다례제를 봉행하기로 했다. 또 조불련은 평양불교문화연합사업에 따른 부지 및 건물확보를 위한 권토동, 조계종은 사업시행의 타당성 권토 및 연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측의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북측의 조불련 중앙신도회 간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신계사 합동법회 때 남과 북의 신도회 대표단이 참석해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해로 이만 북측 보배산 향암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해로 이만북 본부장 지효스님을 비롯해 자상조배상 결사주진보불 총괄부장 종홍 스님, 사장국장 상원스님 등 5명이, 북측에서는 조불련 중앙위원회 리규봉 서기장, 차규룡 조불련 부원장, 한정룡 조불련 전국신도회 부위원장, 리서해 조불련 전국신도회 신도위원 등 4명이 참석했다.

홍다영 기자 hong10@bulgyo.com

남북함께 사는 세상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이산가족 상봉 등 최근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관계 개선까지는 어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 20일 제4 조계사 인간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종단 집행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남북이 함께 사는 세상을 열원하며 염기양상을 하고 있다.

김정주 기자 ccdjoo@bulgyo.com

정전60주년 열린음악회

9월3일 전쟁기념관

정전 60주년을 기념하는 "KBS 열린음악회" 가 오는 9월3일 저녁7시30분부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다. 한국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열린음악회는 KBS 관현악단과 예술단의 연주를 비롯으로 소나, 장윤정, 아웃사이더, 조성모, 유열, 윤상 등 인기있는 불자가수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다. 또 조불련은 평양불교음악 전람사업에 따른 부지 및 건물확보

2013 www.tripitaka-festival.com
대장경세계문화축전
Tripitaka Koreana Festival
2013. 9.27~11.10 (45일간)
경남 합천군 가야면 주행사장(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해인사 일원
주요행사
공식행사 개막식, 폐막식, 대장경 이운행렬 등
전시행사 대장경전시관, 입체영상관, 세계교류관, 해인이트프로젝트 등
체험행사 해인사 소리길 힐링 체험, 소원등 달기, 인경체험 등
입장권 예매방법
N-tour 전 지점, 경남은행 전 지점, 인터파크 ticket, 인터파크 티켓 → 입장권 예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Tel. 055-211-6276)
www.tripitaka-festival.com → 입장권 예매 클릭 → 티켓코크 → 입장권 예매
입장권 사전예매(인터넷 특별할인 (8.20일 까지)
어 른 6,000원 (현장가 10,000원) | 청소년 4,000원 (현장가 8,000원) | 어린이 3,000원 (현장가 6,000원)
주최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주관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소원등 달고 대장경 氣 받으세요
기원기간 9.27~11.10(45일간)
장 소 주행사장 내(합천군 가야면) 접수기간 1인원/2만원
접수방법 홈페이지 www.tripitaka-festival.com 전화 055)211-6271
소원내용 재물, 건강, 축복, 화목, 승진, 합격 등 기원 * 지내면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인명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기 간 축전 기간중 (40일) / 단체 30명 이상 신청(등록비30,000원)에 한함, 단 학생 단체는 제외
축전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접수 (추후 일정 공지)
- 주행사장 무료 입장 인파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
- 소원 기원등 10% 할인(일정 대여일만 기념품 증정 (현장 접수 선정)
- 입장권 30매 무료 증정 (추첨을 통하여 선정)
- 해인사 입장료(3,000원) 무료 및 소리길 힐링 연계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해인사 일원에서 만나요